

'환자안전 전담인력' 첫 교육 실시

환자안전법 시행 ... 전담인력 배치하고 교육해야

환자안전법이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배치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위한 첫 환자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간호사 또는 의사는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최초 시행하는 교육은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4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된 '2016년도 제1차 환자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한병원협회에서 10월 10~12일 진행했다. 430여명이 참석했다. 병원협회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QI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교안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꾸리는 등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교육은 신규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해 이해하고, 필수 업무내용을 파악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 첫날에는 전담인력이 참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선언문 선포식'과 함께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둘째날에는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 등, 셋째날에는 △환자안전 문화 △감염관리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위한 첫 교육이 열렸다.

및 의사참여활동 사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담인력의 임무 및 업무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병원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안전교육은 오는 12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한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환자안전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또

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 기관에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환자안전활동 등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됐다.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9월 22일부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이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기관은 △태종대요양병원 △인창요양병원 △분남요양병원 △정라백세요양병원 △해오름요양병원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이순요양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원주민중요양병원 △참사랑요양병원 △정주원광효도요양병원 △의산성모병원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등 14곳이다.

시범사업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임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하다.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시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 1회)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된다.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 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이용을 원하는 말기암 환자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등의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는 건보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으로 하면 된다.

☎ 033)736-4305~8, 4303 주혜진 기자 hjjoo@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키즈리본 캠페인'

현재 소아·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 10명 중 5명은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키즈리본 캠페인'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 및 12개 지역암센터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캠페인을 10월 4~7일 펼쳤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암예방 사업을 대상별 맞춤형전략에 따라 수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10대 암예방 수칙 중 소아·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 운동, 금연, 건강체중, 예방접종 등을 강조했다.

소아 대상으로는 구연동화와 인형극을, 초등학생 이상에게는 찾아가는 암예방 홍보관 운영과 암예방 OX퀴즈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암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했다.

복지부는 11월까지 지역별로 학교 방문교육, 홍보보수 운영 등을 통해 암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를 계속기로 했다.

지역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홍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콘텐츠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내 암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암센터 주관 교사 연수프로그램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대상 홍보뿐 아니라 암 발생 감소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암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7만60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암은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14조원에 이른다.

주혜진 기자 hjjoo@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홍창형)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괜찮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백종우)의 2015년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 81.0%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 등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자살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니 캠페인'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자다.

순글씨 엽서로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캠페인',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고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에어키스(AirKiss) 캠페인', 희망을 북돋우는 노래와 댄스로 구성된 퍼포먼스 '괜찮니 플래시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플래시몹에 사용되는 음악인 '괜

찮니, 괜찮아? SONG'은 V.O.S 박지현, 랩터트 임성인 등이 제능기부로 참여해 제작했다.

괜찮니 캠페인은 '괜찮니.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와 연계한 엽서쓰기에 참여하거나 에어키스 캠페인 동영상 업로드할 수 있다. 음원, 편지지, 엽서 등 홍보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능기부를 통해 괜찮니 캠페인 기획을 담당한 유연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지 않고 '괜찮니?'라는 친근한 인사말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유휴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 교육목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 및 간호사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 주요 프로그램
(이론) 간호관련 정책과 간호윤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운영사례, 환자안전법과 간호 등
(실기) 활력징후·감염관리 등 실기간호술 6개 영역 등

■ 교육시간
온라인교육 16시간,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8시간~16시간 등 최대 40시간
* 유휴간호사 자가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교육생별 교육 설계

■ 교육대상 : 유휴간호사

■ 하반기 교육일정

구분	교육차수	일정
서울·강원	10차	2016. 10. 31(월)~11. 02(수)
	11차	2016. 12. 05(월)~12. 07(수)
부산·울산·경남	6차	2016. 11. 09(수)~11. 11(금)
	7차	2016. 11. 22(화)~11. 24(목)
대구·경북	6차	2016. 11. 15(화)~11. 17(목)
인천·경기	5차	2016. 11. 07(월)~11. 09(수)
광주·전북 전남·제주	5차	2016. 11. 09(수)~11. 11(금)
대전·충북·충남	4차	2016. 11. 08(화)~11. 10(목)

* 권역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권역센터 전화 및 RNjob 홈페이지

■ 문의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표번호 1522-1755(해당권역)
www.RNjob.or.kr → 권역별 게시판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체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선번호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의료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간호사회 (02) 2266-7677	보건진료소협회 (02) 527-339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보통간호사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간호사회 (02) 2267-5688	노인간호사회 (031) 750-508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진 (042) 878-4580		
강원도 (033) 263-6417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2016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안내



- 참가기관 기준(가, 나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나. 실습지도자 교육 및 간호관리자 교육 이수 병원
- 유휴간호사 기준 :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유휴간호사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 (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 권역센터 안내**
- 서울·강원 ☎ 02)2268-2631~3
 - 인천·경기 ☎ 032)441-2926
 -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 대구·경북 ☎ 053)756-8487
 -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